



# 첫 대회서 20승 도전하는 박인비

### LPGA투어 2020 시즌 개막전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 "30대 나이에도 우승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될 것"

박인비(32·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0승을 눈앞에 뒀다.

박인비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에서 열린 LPGA투어 2020시즌 개막전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총상금 120만달러) 3라운드까지 13언더파 200타로 단독 선두를 달렸다.

2위 김세영(27)의 11언더파 202타와는 2타 차이다.

박인비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25승의 박세리(43·은퇴)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LPGA 투어 20승 고지에 오른다.

또 2018년 3월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이후 우승 소식이 없는 박인비로서는 만 30세 이후 첫 승을 따낼 수 있다. 박인비는 1988년 7월생이라 2018년 3월에는 만 29세 8개월이었다.

3라운드를 마친 뒤 박인비는 "오늘 샷이 전체적으로 나뉘랄 데 없었다"며 "마지막 18번 홀에서 퍼트를 세 번 해서 보기가 나온 것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하루였다"고 자평했다.

1. 2라운드에 이어 3라운드 17번 홀까지 보기 없는 플레이를 이어간 박인비는 18번 홀(파3)에서 이번 대회 첫 보기가 나왔다.

하지만 박인비는 "보기로 하루를 마치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보기 프리'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며 "시즌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나고 있어서 자신감도 생길 것 같다"고 여유를 보였다.

그는 또 "30세가 되면서 30대 나이에도 우승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아직 하루가 더 남았는데 좋은 흐름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김세영과 동반 플레이를 하게 된 박인비는 "지난해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고, 매우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고 김세영을 평가하며 "여러 차례 같이 쳐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2020 제주도 육상인의 밤' 행사에서 관계자들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제공

## 최수미 제주육상 빛낸 '최우수 선수'

### 제주육상인의 밤 17일 개최 유공자 시상·장학금 전달

최수미(제주대학교)가 제주 육상을 빛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은 지난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2020 제주도 육상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평국 제주도 체육회장, 김종호 제주시체육회장과 연맹 임원, 대의원, 각 클럽 임원,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 장학금 전달 등이 진행됐다.

제주도육상연맹의 최우수선수

상은 최수미에게 주어졌다. 최수미는 지난해 열린 '제100회 전국 체육대회' 육상 800m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전국 대회에서 활약해 왔다.

다음은 육상인의 밤 유공자.

- ▷ 최우수선수상=최수미 ▷ 지도상=강현우(삼성초) 김형수(외도초) 손일식(남녕고) 이재형(제주도체육회) 서행준( ) ▷ 최우수단체=서귀포마라톤 ▷ 우수단체=제주마라톤 ▷ 모범 심판상=오대근 변근범 강병직 ▷ 공로패=민갑호 ▷ 감사패=강수철 신병엽 김미경 김용찬 김세민 김대성 ▷ 도의회 의장 표창=안우.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경자년 새해 모래판' 최강자 가린다

### 설날장사씨름대회 22일 개막 금강급 강호들 총출동 경쟁

2020년 경자년 새해 씨름판의 판도를 가능할 설날장사씨름대회가 22일부터 27일까지 충남 홍성군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230여 명이 출전해

23일 태백장사(80kg 이하) 결정전을 시작으로 24일 금강장사(90kg 이하) 결정전, 25일 한라장사(105kg) 결정전, 26일 백두장사(140kg 이하) 결정전, 27일 여자부 개인전 및 단체전 결승이 벌어진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되는 체급은 금강급이다. 지난해 금강급에서 세 차례씩 우

승을 나눠 가진 최정만(영암군청)과 임태혁(수원시청)이 새해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187cm의 큰 키를 이용해 지난해 천하장사대회 금강장사에 오른 황재원(태안군청)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가장 무거운 체급인 백두급에서는 장성우(영암군청)가 최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사다.

장성우는 실업 무대에 데뷔한 지난해 영월대회와 용인대회에 이어 천하장사 백두급까지 우승하며 3관

왕을 차지했다.

가장 가벼운 체급인 태백급은 윤필재(의성군청)의 독주가 예상된다.

윤필재는 지난해 추석, 음성, 구례 대회를 휩쓸며 3관왕에 올랐다. 더욱이 신에 허신행이 이번 대회를 앞두고 금강급으로 올라가 견제 세력이 많지 않다.

한라급에서는 두꺼운 선수층의 영암군청 소속의 최성환, 오창록, 박정진에 김보경(양평군청), 손준희(울산동구청)가 경합을 벌인다.

### 전가을, 브리스톨시티 입단 잉글랜드 진출 4번째 기록

한국 여자축구의 '테크니션' 전가을(32)이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브리스톨시티에서 세 번째 해외 무대 도전에 나선다.

브리스톨시티는 19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전가을의 입단을 공식 발표했다.

잉글랜드 무대에 한국 여자축구 선수가 서게 된 건 지소연(첼시), 조소현(웨스트햄), 이금민(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전가을이 4번째다

A매치 101경기(38골)에 출전해 센추리클럽에 가입한 전가을은 한국 여자축구를 이끈 대표적인 선수로 정교한 킥이 강점이다.



프로농구 올스타전 '형제 대결' 1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올스타전 경기. 1쿼터 팀 허훈의 허훈(왼쪽)이 팀 김시래의 허훈을 상대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허재 감독의 아들인 허훈과 허훈은 형제다. 연합뉴스

## 애플마라톤클럽 동호인부 우승 차지

### 2020 전국 크로스컨트리대회 김동주·윤희정은 개인전 1위

애플마라톤클럽이 '2020 전국 크로스컨트리 대회 및 제주 학생 크로스컨트리 대회' 동호인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실업육상연맹과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19일 서귀포시 강창학구장과 동아 크로스컨트리장 일원에서 열렸다.

애플마라톤클럽은 남자 상위 5명, 여자 상위 2명의 배점을 합산한 결과 4시간 15분 55초의 기록으로 서귀포 마라톤클럽(4시간 18분 49초)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동호인부 개인전에선 김동주(베스트클럽)가 30분 29초, 윤희정(애플마라톤클럽)이 35분 25초로 남녀 1위를 차지했다. 애플마라톤클럽 박민주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으며, 최다 완주 클럽은 서귀포마라톤클럽



'2020 전국 크로스컨트리 대회 및 제주 학생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제공

에게 돌아갔다.

실업부 경기에선 청주시청과 포항시청이 각각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 개인전에선 이장근(청주시청)이 26분 02초로, 여자부에선 백순정(옥천군청)이 29분 45초로 우승을 안았다. 이에 청주시청 임광열 감독과 포항시청 장진수 감독이 지도자상을 받았으며, 남자 고등부 개인전에선 이주호(배문고)가 26분 54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전기요금은 "확" 줄어든다, 쓰고 남은 전기는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집 + 똑똑한 태양광이 = 연 360만원

돈 벌어준다면?

옥상이나 마당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꼭 상담 받아보세요!

월 30만원 편의 발생 - 태양광 발전설비 18kw 설치, 주택용 전기사용, 월평균 400kWh 전력소비, 월평균 1,782kWh 전력생산, 자가용 PPA계약시 기준 (※전기요금 절감액 및 전력판매 수익은 발전용량, 소비패턴,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usolar.co.kr